

## 광주·전남 지방선거 본선 대진표 윤곽

광주시장 - 민주 이용섭·정의 나경채·민중 윤민호 대결 속

평화당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 영입 추진

전남지사 - 민주 김영록·평화 민영삼·민중 이성수 3파전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재선거, 지방의원 공천까지 마무리했지만 민주평화당은 뒤늦게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하는 등 막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등 후보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민주당은 예비후보 7명의 치열한 당내 경선 끝에 이용섭 전 부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나경채 후보를, 민주당은 윤민호 후보를 일찌감치 내세우고 연일 기자회견과 정책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할 평화당은 광주시장 후보로 '5·18 사형수'로 불리는 김종배 전 국회의원 영입을 추진 중이다. 김 전 국회의원은 광주로 주소 이전은 마쳤지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김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경력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은 인물난에 빠지면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나경채 후보와 민주당 윤민호 후보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를 겨냥해 TV 정책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자신들의 존재감 부각에 올인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당의 고공 저지를 등에 업고 '백패진 지방선거'로 진행되는 흐름을 차단하고, 정당이 아닌 정책과 인물 검증에 의해 지역일꾼을 뽑

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지사 후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평화당 민영삼 후보, 민주당 이성수 후보가 3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과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올랐다. 인지도 등에서 앞선 김 후보가 전남에서 고공행진 중인 정당 지지율까지 등에 업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야권 후보들의 선전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경쟁력을 입증한 데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경력에서도 우위에 있다. 평화당은 최근 영입한 민영삼 최고위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애초 전남지사 선거판을 뒤 흔들 변수로 예상됐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출마가 불발되면서 민 최고위원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의원 수 20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국회의원 추가 확보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못해 경쟁력 있는 박 의원의 등판은 무산됐다. 민 후보는 서울시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정동영 대선 후보 공보특보 등을 지냈다.

민주당 이성수 후보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지만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지지세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 평화 무드 속에 '통일 농업'을 기치로 내세워 친 농민, 친 노동 후보로 이미지를 각인해가고 있어 선전이 기대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아직 후보를 내지 못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송갑석 노무현 재단 광주 운영위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평화당에선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홍훈희 변호사 간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 경선은 10일과 11일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평화당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대결을 펼치게 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대나무축제 '우산 터널' 7일 휴일을 맞아 담양대나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색깔의 우산으로 장식된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이날 폐막한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들을 포함해 관광객 47만여명이 다녀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북·미 정상회담 '기싸움'

미국, CVID보다 높은 영구적 핵폐기 PVID 언급

북한, "평화이지 오판하고 군사적 위협 말라" 반발

북한과 미국이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미뤄지고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관련기사 2면>

일단 미국은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보다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새 목표를 언급하는 한편 폐기 대상으로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과포무기(WMD)를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비핵화 이외에 추가 요구를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아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장과의 지난 4일(현지시간) 회동,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 측이 대미 협상 카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했지만 중·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거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이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이에 북한은 관영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서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 기사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양측이 좀 더 높은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본을 지렛대 삼아 '성동격서'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판을 깰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수위를 조절하며 물 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해남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된다

부석사·통도사·법주사 4개 사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인정받아

해남 대흥사(주지 스님 월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대흥사,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등 4개 사찰을 등재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네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번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로 신라시대 창건된 대흥사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문산에 소재한다. 대흥사가 크게 중창된 것은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뒤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며, 종통의 소귀처 자신의 의발(衣鉢)을 대승선에 전할 것을 맡기면서다.

대흥사는 문제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를 했던 남다른 인연을 지닌 절이다. 또한 최근에는 월우 주지스님은 오는 6월 중 일행 30여 명과 북한을 방문, 서산대사 국가 제향 행사를 남과 북이 공동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월우 스님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냈던 서산대사의 호국충혼을 바탕으로 민족 화해와 통일의 의미를 담아 서산대사 제향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 함께, 새롭게 만드는, 균형잡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